

할머니는 생선을 발라 아빠의 밥그릇에 먼저 올려놓았다. 그다음은 오빠였다. 내 차례가 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엄마의 밥그릇은 끝내 비어 있었다. 엄마는 밥을 먹지 않고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반찬을 날랐다. 어린 나는 그 모습이 이상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집에서 자랐다. 특히 친할머니는 장남인 아빠를 특별하게 생각했다. 내가 느끼기엔 고모가 더 할머니를 챙기고 효도하는 것 같은데도 할머니는 3남매 중 우리 아빠를 더 챙겼다. 장손인 친오빠 사랑도 남달랐다. 할머니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매번 고기나 생선을 아빠-오빠-나 순서로 챙겼다. 며느리인 엄마는 옆에서 음식을 챙기느라 앉지도 못하고 있었다. 아빠가 앉아서 같이 먹자고 말해도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마당에 며느리인 엄마가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앉을 수가 있을까.

우리 집은 친할머니댁 분위기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엄마가 전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빠가 돈을 벌어들였다. 엄마가 결혼하기 전 직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은행원이어서 오히려 그 시절 아빠보다 돈을 잘 벌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퇴사를 강요당했다고 했다. 결국 엄마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고, 육아와 집안일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았던 엄마는 오랜 시간 경력이 단절되었고, 그동안 쌓아 온 일상과 꿈도 함께 멈춰야 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또한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만 돌보게 된 엄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런데 은행원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늘 같은 말로 끝났다.

“그때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결혼은 행복보다 희생이 먼저 떠올랐다. 나도 언젠가는 엄마처럼 내 삶을 뒤로 미루고, 경력이 단절된 채 가족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엄마와 아빠는 우리 남매만큼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키우지 않았다. 공부도, 대학도, 꿈도 여자라는 이유로 막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딸인 나는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 결혼한 여성의 삶은 엄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엄마가 근처 리조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뽑히면서 엄마도 아빠와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아빠는 가족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이제 엄마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같이 해야 할 것 같아. 너희들도 같이 해야 해.’

그 뒷날부터 먼저 퇴근한 아빠는 앞장서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닦으며 엄마를 맞았다. 아빠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리도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다. 나는 사실 놀랐다. 엄마가 일을 해도 아빠는 집안일에 손도 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먼저 나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 모습을 보며 집안일은 성별이 아니라, 가족의 상황에 맞춰 함께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일을 가족 모두가 하게 되며 아빠와 오빠 그리고 나는 묵묵하게 집안일을 모두 해내던 엄마의 힘듦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도 오랜만에 직장생활을 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몇 달 뒤에는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많이 변했다. 원래라면 엄마가 모두 해주었겠지만 오빠와 나는 아침, 점심을 스스로 챙겨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리고 퇴근한 아빠가 저녁을 챙겨주려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한다. 원래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아빠가 영상을 찾아보며 음식을 해준다. 처음에는 간이 너무 짜서 모두가 물을 찾았다. 계란프라이는 새까맣게 타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빠는 다음 날 또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저녁을 만들었다. 어느새 아빠가 끓인 된장찌개를 엄마가 맛있다고 말하는 날도 생겼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는 아빠가 싱크대 앞에 섰다. 서툰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접시에서는 연신 물이 튀었고, 저녁 늦게서야 퇴근한 엄마는 뒤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웃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엄마도 직장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그제야 엄마는 아빠가 매일 회사에서 견뎌야 했던 무게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아가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할머니 댁에서도 일어났다. 아빠가 할머니 댁에서도 이 정도는 자신도 할 수 있다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국을 끓이는 걸 돕고 설거지를 했다. 평생 부엌에 들어오지 않던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힘드니까 가서 쉬라고 하는 할머니의 말쑼에 아빠는 말했다.

‘어머니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셔서 힘드실 텐데 이걸 제가 할게요.’

아들사랑이 지극하신 할머니는 결국 아빠를 쫓아내셨지만 싫진 않은 표정이셨다. 아빠의 적극적인 모습 때문인지 직장생활을 시작한 엄마를 이해하신 건지 할머니는 아빠에게 엄마가 힘드니 많이 도와주라며 말하셨다. 여자가 일을 해도 집안일은 해야 한다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신기했다. 아무리 깊게 박힌 인식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면 그 인식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집안일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뒤 엄마의 삶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엄마는 좋아하는 꽃을 찾아 길을 걷고, 산에 오르며 웃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 두었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디지털대학교의 문도 두드렸다. 비로소 엄마도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성평등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제는 나도 식사 후 먼저 설거지를 하고,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저녁을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함께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돌봄을 이제는 함께 책임지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다. 엄마가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 낸 가장 큰 변화였다.